

“전기차 정책 보급 위주... 후방산업은 뒷전”

■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 “예산 효율화 위해 전기차 정책 전반적 재검토 필요”

제주도정의 전기차 정책이 보급 위주로 추진되면서 충전기, 사후 배터리 등 후방산업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제2차 회의에선 제주도가 보조금 지급을 위주로 전기차 보급 정책 홍보에만 급급해 관리와 사후 문제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최근 3년 간 예산변동 현황 가운데 명시 이월 예산은 지난 2019년 22억원에서 올해 34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매년 전기차 보급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지난 7월 기

준 전기차 보급계획 대비 신청 현황을 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2046대 대비 678대로 약 33%, 전기 승용차의 경우 2200대 대비 1774대로 약 81%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선호도가 나뉘고 있다”며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 역시 명시시월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또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디자인과 운행 효율성을 고려하는 소비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며, 화물차의 경우 운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선 전기차 추진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 역시 “도내 전기차 충전기 1만8000여개가 비치돼 있는데, 방치된 충전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선 보급 위주로 추진되는 제주도정의 전기차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서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의무적으로 관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협의하는 등 제주도정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제주도가) 이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내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강제 철거, 패널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미운행, 충전기 방치 등의 사례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패널티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내 집 꿈꾸는 모든 이에게 ‘국가찬스’를 원 지사, 어제 서울 이룸센터서 주택정책 토론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원 지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주도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이 모두 실패했다. 이는 시장 원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만능의 오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안정”이라며 “정책 목표가 수요 억제나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하고, 더 나은 집을 원하는 모든 국민은 욕구와 형편에 맞는 주거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택자 및 총액기준 이내 다주택자 보호 강화 ▷무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규제 프리존 특구 지정 등 통

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이어 “개정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전월세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집값을 상승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고정하는 것은 명칭만 바꾼 만능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근로 소득만으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 주택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원 지사의 기조연설에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축사와 인사말이 있었다. 전문가 세션에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심교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강다혜기자

“추경, 농어업인 여건 반영치 못해”

김대진 의원, 농정당국 예산확보 노력 요구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선 제주도가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사진)은 “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은 6.9% 증가한 반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 대비 1.7%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올해 제주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56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97억원, 사회복지 분야 1조 336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5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295억원 등 총 5조 8298억원이다.

이중 본예산 5조 8298억 원 보다 4012억원 (6.9%) 증가한 6조 231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1차 산업분야 예산 증가율은 1%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진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산업·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FTA기금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2학기 전면등교 준비 와닿는게 없다”

이승아 의원, 능동적 정책 방안 마련 주문

오는 9월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한 제주교육당국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사진)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학기 전면 등교와 관련) 얼마나 능동적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는데 솔직히 와닿는게 없다”, “수요자에 맞춘 정책이 편지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하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진정 원하는 정책이 될까, 희망지원금 10만원을 받게 되면 싫다고는 안하겠지만 지금 ‘잃어버린 공교육’이 2년째”라면서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정책만 바라보지 말고, 제주도 여건에 맞춰 2학기 전원 등교할 수 있는 적극·능동적인 방안 마련을 주

문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부교육감은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보이실 것”이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 찾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88억원) 편성을 놓고 유치원과 같은 연령대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원아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관리 주체인 제주도청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은 “양 기관이 최소한 예의를 지켜달라 여러번 주문했는데, 예의를 안 지켜 감정 대립하는 걸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양 기관이 협조해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관광숙박·펜션 등 코로나19 집중 방역

제주시, 이달말까지 이용객 많은 75개소 대상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여름철 성수기 이용객이 많은 관광숙박시설·휴양펜션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말까지 관광숙박시설 61개소와 휴양펜션업 1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철 많은 도내의 방문객들이 찾는 함덕해변, 협재·금능해변, 제주공항 인근의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관광숙박업의 객

실 내 정월 초과수용 금지 및 행사 시 연회장 내 인원 제한 사항과 휴양펜션업 외부 이용시설에서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 금지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철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집중 방역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종합적인 방역 현황을 점검한다.

시는 방역 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할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owerful

용량 : 20kg

팜빅산
토양의 pH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팜빅산
토양의 pH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